

# 해남군 '초당옥수수' 틈새 소득작목 본격 육성

### 생으로 먹고 당도 높아 인기를 올 재배면적 20ha로 늘려 종자·비료 지원에 재배 교육

해남군이 생으로 먹는 옥수수인 '초당 옥수수'를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 해남군은 올해 지역 15농가가 20ha 면적에서 초당 옥수수를 재배해 지원에 나섰다 2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4500만원(자부담 32%)을 투입해 옥수수 종자와 완효성 비료, 생분해 비닐 등을 공급하는 한편 재배 기술 현장교육을 통해 고품질 옥수수 생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 2ha 면적에 조기 출하를 위한 비닐하우스, 개량 비닐멀칭 시험재배를 실시해 2기작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용이 끝난 비닐하우스를 활용해 친환경 실증시험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초당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수확에 앞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농가의 틈새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당옥수수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개발된 간식용 풋옥수수로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超糖, super sweet corn)'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최근 과일 못지 않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살려 생식으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웰빙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수분 함량이 높아 대부분 생으로 먹고, 별도의 감미없이 샐러드나 구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00g당 칼로리가 96kcal로 찹옥수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

특히 해남산 초당옥수수는 엄격한 재배 관리와 선별로 무게 400g, 20브릭스 이상 당도의 최상품만을 출하하고 있어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3ha에 이어 올해는 20ha까지 재배면적을 늘릴 예정으로 6~7월경 총 450여을 수확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초당 옥수수는 찹옥수수 중심의 국내 옥수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전망이 좋은 작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해남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만큼 고품질 친환경 초당옥수수를 생산해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군 주민들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로 '캘리그래피&POP' 교육을 받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찾아가는 평생교육' 인기몰이

완도군이 지역 특화한 다양한 평생 교육 사업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가운데 완도읍의 정리수남 전문가 자격과정과 노화음, 보컬면의 '캘리그래피&POP'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해초따래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은 전남 행복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세

부사업 컨설팅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해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개강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색화를 살리고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완도군은 이 가운데 2개 분야에 선정돼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해남 두륜산으로 녹차체험 오세요

### 5월 한달간 일반인 개방

해남군은 녹차체험을 위해 두륜산 도립공원에 조성된 녹차밭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개방한다. <사진>

두륜산 녹차밭에서는 직접 찻잎을 따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체험실에서 녹차를 가공해 가져갈 수 있다. 체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참가비용은 체험 5000원, 뒤음 5000원으로 체험실에는 뒤음 등에 필요한 가공시설이 갖춰져 있어 녹차 잎을 차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참가를 위해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취에 필요한 바구니를 받아 도립공원 녹차밭에서 녹차 잎을 채취하면 된다. 만든 차를 시음할 수 있는 다실도 운영되며 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다도체험도 가능하다. 도립공원 두륜산 자락에 조성된 녹차밭은 2만 8200㎡에 14만주의 녹차나무가 심어져 있다.

두륜산은 우리나라 다문화의 흥흥초의 선사가 40여년간 은거했던 일지암 등이 위치한 한국의 성지로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녹차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530-5957. /해남=박희석기자 dia@



## 해남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해남군은 농가 사료비 부담완화 및 기존 이자부담의 감면을 위한 농가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금액은 18억 8600만원으로 지난 6월로 마감한 1차 접수에 6억 2800만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사업비 12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 받아 배정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 농가 및 법인으로 2년 일시상환 연 1.8%의 이율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와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으로 지원한도는 한우우와 낙농, 양돈, 양

계, 오리는 농가당 6억원이다. 기타 가축은 9000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두당 한우우 136만원과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 8000원 등이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7~2018년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는 지원이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와 지역 농·축협 신용조사서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진도군 차세대 수산경영인 69명 선정

진도군이 차세대 선진 어촌 조성 및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올해 수산 경영인 69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영인은 올해 초 신청 받아 개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받은 어업인 후계자 39명, 전업 경영인 26명, 선도우수경영인 4명 등 총 69명이다.

진도군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지속적으로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자립 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섰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된다. 융자금 지원은 사업 대상자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기반조성 또는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수산업경영인 모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최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완도 일출공원에 300m 짙라인 설치한다

### 郡, (주)라온과 투자협약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완도 일출 공원에 짙라인(ZIPLINE)이 설치된다.

완도군은 24일 (주)라온과 다도해 일출 공원에 짙라인 설치 투자협약을 맺었다.

라온은 5억원을 들여 완도타워에서 모노레일 하차장까지 약 300m 2개 라인을 설치해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일출 공원에는 완도타워가 있어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지만 관광 자원과 비교해 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짙라인이 설치되면 체험하고 즐기는 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체류시간도 늘고 다른 주변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진도군 도깨비굿 등 5종 향토문화유산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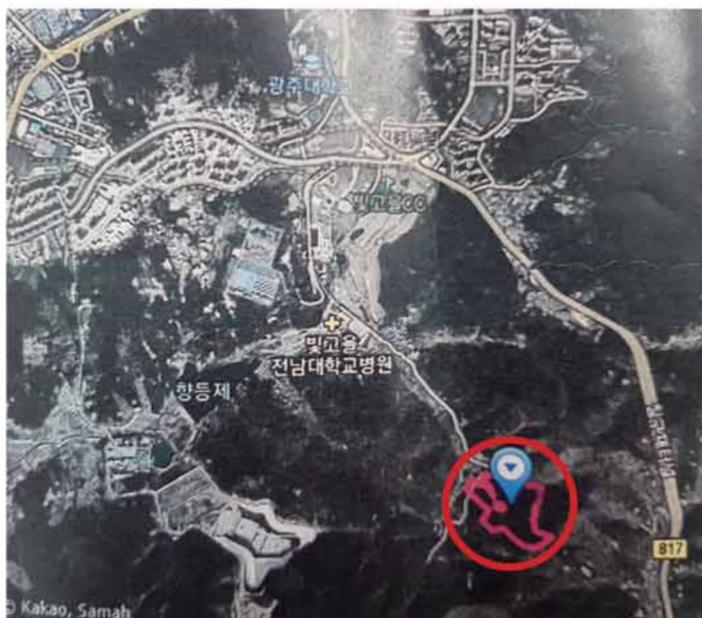
진도군이 보존이나 전승 가치가 큰 서외 도깨비굿 등 5종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열어 도깨비굿과 고군 깃봉산 산타령, 남한산성 도척놀이, 덕병마을 거릿제, 진도 짚풀 공예 등을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 의결했다.

전국적으로 분포돼 지역 특성을 찾을 수 없는 '민속연 날리기'와 전승이 단절

된 '살랭이 놀이', '차점지 놀이'는 보존회 결성 등 전승 가능할 때까지 지정을 유보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외에 보존과 전승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총 31종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0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